

# 주인도 모르게...서울~성삼재 고속버스 인가

관할 구례군에 알리지도 않고 국토교통부 경남 업체에 승인 24일 첫 운행...전남도는 반대 환경오염 차량통제 정책과 배치



최근 국토부가 동서울~구례 성삼재 간 고속버스 노선을 승인한 가운데 관할지역인 구례군과 전남도가 반발하고 있다. 사진은 구례 지리산 성삼재 주차장.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과 전남도에는 알리지도 않고 국토교통부가 경남지역 버스업체의 구례지역 고속버스 정기 운행 노선 계획을 승인해준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다. 13일 구례군에 따르면 경남지역 버스운송업체인 함양지리산고속버스는 지난달 10일 국토교통부로부터 고속버스 운행 정기 노선을 인가받아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지리산 노고단 성삼재까지 우등고속버스를 운행한다. 이 노선은 오는 24일 금요일 첫 운행에 들어간다. 서울 동서울터미널에서 금요일 오후 11시50분에 출발하고, 지리산 성삼재에서는 토요일 오후 5시10분 출발한다. 코로나19 여파로 인해 당장은 주말에만 운행을 하다가 승객 증가 추이에 따라 평

좌석버스가 운행되는 점 등을 들어 부적합하다는 의견을 국토부에 전달했다는 것이다. 관할지역으로 이해 당사자인 구례군에는 알리지 않고 전남도는 반대했는데도, 국토부는 지난달 '여객자동차운송사업 조정위원회'를 열어 경남도의 변경계획안을 승인, 노선이 신설됐다. 전남도는 이에 반발, 조만간 국토부에 조정 신청을 할 방침이다. 특히 구례군은 지리산 대기오염 저감 대책으로 노고단도로를 통해, 차량운행을 제한할 계획이어서 이번에 허가받은 함양지리산고속과의 갈등도 우려된다. 구례군 관계자는 "지리산 성삼재까지 일반버스와 관광버스 등이 운행되면서 대기오염이 심각하다"며 "노고단도로의 차량 운행을 통제하고 대체 교통수단으로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를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최근 "구례군이 실시하고 있는 공원계획변경 용역이 완료되면 구례군과 함께 환경부에 지리산 케이블카 설치 사업을 제안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구례=이진택 기자 lit@kwangju.co.kr

# 코로나 확산 속 골프 친 공무원 7명 직위해제

영암군, 확진 판정 긍정면장 등 전남지역에 급속히 확산하는 엄중한 상황에서 일부 공직자의 코로나19에 대한 안이한 인식과 사려 깊지 못한 행동으로 빚어진 일에 대해 군민들께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며 신속한 인사조치를 약속하는 사과문을 발표했다. 전 군수는 앞으로 이러한 불미스러운 사건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공직 기강 확립에 철저히 하겠다고 강조했다. 영암군은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자 군민 불안감 해소를 물론 최우선인 군민의 생명과 안전을 고려해 선제적으로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전수검사를 했으며 전원 음성판정을 받았다. 지난 10일 군 분청과 읍·면사무소는 업무를 재개했고 13일에 공무원 5명을 금정면사무소에 긴급배치해 업무 공백을 최소화했다. 전동평 영암군수는 "코로나19가 광주·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 민주노총 동아여중·고 분회 남양학원 공립화 촉구

민주노총 공공연대노동조합 광주지부 사립학교사무직원 동아여중·고 분회가 임시이사회 체제로 운영되는 남양학원(동아여중·고)의 공립화를 촉구했다. 동아여중·고 분회는 13일 자료를 내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사분위)와 광주시교육청은 수익용 재산 증액과 부정·비리료 채용된 교사의 인건비 10억원 반환을 남양학원 정상화 조건으로 내세우고 있지만, 종전 이사들이 정상화 조건을 이행할 의지가 없다고 판단되므로 공립화가 해결책"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남양학원은 차행될 설립자가 내세운 건학이념으로 잘 운영하다가 설립취지를 유지하지도, 내실있게 운영하지도 못한 상황에서 급기야 일어나선 안 될 채용 비리로 임시이사가 선임되는 지경에 이르러 설립자의 청학 이념을 심대하게 훼손했다"며 "설립 정신 회복,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서라도 공립화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동아여중·고 분회는 "사분위가 광주를 찾아 남양학원 임시이사를 대상으로 정상화(정이사 체제로의 전환)를 위한 의견을 청취한다"며 "사학의 공공성을 위해 반드시 공립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동아여중·고 분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14일 사분위 현장 실사단에 직접 제출할 예정이다. 한편 남양학원은 지난 2016년 교직원 채용 과정에서 금품이 오간 사실이 드러나 부정하게 채용된 교사 6명이 임용 취소됐고 임시이사회 체제로 전환됐다. /김대성 기자 bigkim@kwangju.co.kr

# 한국철도 광주본부

## 여름 휴가철 KTX 반값 할인

한국철도 광주본부는 여름 휴가 기간을 맞아 오는 20일부터 내달 10일까지 '돌아서 KTX 반값'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가족·친구 등 돌아서 함께 타면 KTX를 반값에 이용할 수 있다. 광주 송정-용산은 2인 기준 9만 3600원이지만 '돌아서 KTX 반값'을 이용하면 4만 6800원에, 목포-용산 구간은 10만 5600원에서 5만 2800원으로 할인된다. 'KTX 동반석'도 최대 70%까지 할인 판매한다. KTX 동반석은 소규모 여행객을 위한 4인 묶음 좌석으로 일행끼리 안심하고 여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할인이벤트는 오는 14일 오후 2시부터 '한국철도 홈페이지', 스마트폰 앱 '코레일톡' 등에서 구매할 수 있다. 열차별 할인 좌석이 한정되어 있어 예매하는 것이 유리하다. 한국철도 광주본부 관계자는 "열차 이용 시 고객이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 동선 분리, 손 소독기 설치, KTX 방역 등을 꼼꼼하게 챙기고 있다"며 "이번 이벤트로 KTX를 이용하는 국민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경제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

# 광주 동구, 주차장 부지로 사들인 고주택 보존키로

"근대 양식 주택...역사적 가치" 주민 커뮤니티 공간 등 활용



개폐가 가능한 고택 내부 복도 모습.



마당에서 바라본 고택의 외부모습.

광주시 동구가 지난 4월 사들인 주차장 부지에 위치한 1930년대 지어진 고주택을 역사적 가치를 감안해 보존하기로 결정했다. 13일 동구에 따르면 동구는 광주시 동구 동명동 서석교회 옆의 고택을 철거하지 않고 보존하기로 최종결정했다. 85년 전에 지어진 것으로 알려진 고택은 연면적 145㎡(대지는 852㎡)의 남향 주택 건물로, 서양식·일본식·한식이 혼재한 독특한 양식의 주택으로 평가받고 있다. 주택 소유자에 따르면 이 고택은 1936년에 지어졌고 1955년 필지 분할 과정에서 등록, 서류상에는 1954년 건물로 등록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지난 4월 동구는 이 고택을 포함 일대 부지를 행정복합센터와 주차장으로 개발할 계획으로 16여 억원을 들여 매입했다. 하지만 한옥 전문가와 건축 전문가들 사이에서 최근 이 주택에 대한 보존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 건물은 당시 고급 주택에 들어가는 목재인 소금에 써서 말린 목재로 지어졌

고, 건물의 곳곳에 공결이나 쓰인 자재들을 다수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고택을 정면서 바라보면 왼쪽은 서양풍 외관에 내부는 일본식으로 설계됐고, 오른쪽은 전통 한옥 양식으로 지어져 근대문화유산의 가치가 충분하다는 것이다. 남승진 광주건축단체연합회장은 "이 건축물은 다양한 양식이 섞인 독특한 주택으로 건축학적으로도 보존 가치가 매우

높다"고 분석했다. 동구는 앞으로 이 고택에 대해 리모델링을 거쳐 인문학당이나 주민 커뮤니티 공간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임택 동구청장은 "보존과 개발의 갈림길에서 보존을 택한 이번 결정은 동구의 인문자산과 문화원형을 보존하고자 하는 인문도시 동구의 의지이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북구,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공모

광주시 북구가 주민들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는 북구 만들기에 나선다. 13일 북구에 따르면 북구는 오는 21일 까지 '2020 저출생 대응 아이디어'를 공모한다. 이번 공모는 출생인구 감소를 극복하고 출산 장려 분위기를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공모분야는 ▲저출생 극복 아이디어 ▲슬로건 ▲UCC 3개 분야이다. 공모내용은 저출생 인식제고, 결혼·출산 장려, 기존 정책 개선 등을 담으면 된다. 주민 누구나 참여 가능하며 북구청 홈페이지에서 관련 서류를 내려 받아 여성 아동과로 방문, 우편, 이메일 등으로 신청하면 된다. 오는 28일 당선작을 발표하고 최우수상 80만 원 우수상(2명) 각 40만 원, 장려상(2명) 각 20만 원을 수여한다. 우수 아이디어는 구정에 적극 반영할 방침이라는 게 북구의 설명이다. 한편 북구는 민·관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리두리 작은결혼식', '저출생 인식개선 릴레이 캠페인' 등 결혼, 출산, 가족친화 분위기 확산을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치고 있다. 문인 북구청장은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를 만들기 위해 관심 있는 주민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ESS시공전문기업**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중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선로 걱정 아시고 전하주세요!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전화**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010-2845-4754